

영암군, 월출산 국화축제장 '북적'



영암군은 지난 28일 시작한 '2017 월출산 국화축제'의 첫 주말과 휴일, 16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는 11월12일까지 기찬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영암에서 열리고 있는 '월출산 국화축제'가 관광객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영암군은 지난 28일 시작한 '2017 월출산 국화축제'의 첫 주말과 휴일 16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

내달 12일까지…첫 주말·휴일 16만여명 찾아

23종 17만여점 전시…체험·공연행사도 풍성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국화회분을 만들고 집으로 가져가 키우는 '화목국화 테이크아웃'과 국화암화체험 및 국화타투체험 등 국화와 연관된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또 워크숍 안에서 볼풀공 위를 굴러다니는 어린이 맞춤형 놀이터인 '국화볼 워터피아 놀이터', '떡메치기 체험', '스마트포토 인화체험', '氣전건강체험 및 국화테라피 체험'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됐다.

공연행사는 11월4일 목포MBC의 '즐거운 오후2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하준화, 강진, 조승구, 현숙, 김성환, 현진우 등 대형 트로트 초청가수의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11월5일에는 혼성듀오 신현

회와 김루트 등 다양한 밴드공연 등이 열리며, 전국청소년 힙합 경연대회와 전국외국인가요제도 축제기간 진행된다.

이 외에도 프러포즈 이벤트가 필요한 연인이나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랑향기 국화프로포즈와 축제장만 제대로 관람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 등은 축제의 또 다른 재미를 더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다른 국화축제와 달리 월출산 기찬랜드의 자연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영암민의 축제가 관람객을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화향기로 가득찬 월출산 기찬랜드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편안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 보고 먹고 즐기는 한우축제 개최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죽녹원 앞 종합체육관 광장

가을 여행객들의 기습을 설레게 하는 담양군에서 대나무처럼 한결같은 대금맑은 담양한우를 주제로 '제7회 대금맑은 담양한우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죽녹원 앞 종합체육관 광장 일원에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려지며, 대금맑은 담양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축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꾸며진다.

축제 기간 중 운영되는 '한우개량 품평회'와 '한우 요리경연', '브랜드육 직판장', '한우골든벨', '한우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관람객들에게 영산강 시원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대금맑은 담양한우의 진가를 알린다.

특히, 담양한우 품평회에 출품한 맛좋은 고급육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한우가 요제와 지역예술 단체공연을 비롯해 초대가수 공연은 축제의 흥을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제7회 대금맑은 담양한우축제는 담양군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금맑은 담양한우축제추진위원회와 담양축협이 주관하며 읍·면축산계와 여성축산계 등 22개 축산단체가 참여한다.

담양=박종영 기자



“눈앞에서 거대 공룡이 움직여요”

해남공룡박물관 VR체험장 인기…체험료 무료

해남공룡박물관에 새롭게 문을 연 VR(가상현실) 공룡영상 체험시설이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문을 연 VR공룡영상 체험은 VR기기를 이용해 공룡의 영상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안경을 쓰면 눈앞에서 공룡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총 4

분짜리 영상은 거대 공룡 조비리아가 앞에서 깨어나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공격

을 받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거대 공룡실에 전시된 높이 21m의 조비리아 공룡 화석이 깨어나 실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신기한 체험이 공룡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시설로 부각되고 있다.

VR 공룡영상 체험실은 공룡박물관 지하 거대공룡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체험료는 무료이다.

공룡박물관 관계자는 "소풍철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



디"며 "다양한 콘텐츠 요구가 늘어 남에 따라 앞으로도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보강해 나가겠다" 말했다.

힐링 최적지 강진, 군민소득도 올랐다

내달 12일까지 갈대축제장·오감통 관광객 눈길 사로잡아

가을 힐링 최적지 강진이 갈대축제와 차별화된 음악여행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7일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제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열고 17일간의 가을 여행을 풀어 냈다. 같은 기간 강진읍내 오감통에서 역시 17일간의 강진읍내

악여행 프로그램을 펼쳐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20만명에 이르는 갈대숲과 3km에 이르는 생태 데크길을 걸으며 추억과 힐링을 안겨주는 강진만 생태공원, 남도 맛의 1번

죽제로 이원화해 지역민 소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오감통에서 열린 로맨틱풀데이뮤지페스티벌은 읍내 주민들의 참여와 관광객들이 동시에 즐기기에 안성맞춤 이었다.

지난 27일 오전 '갈대 바람을 따라서 만남'이란 테마로 갈대숲을 걷는 것을 시작으로 열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인파로 북적였다.

강진만 쌍셋 사랑의 소원달기, '강진민갈대' 오행시 짓기, 가족과 우정, 웨딩, 추억을 테마로 한 갈대

밭 예쁜 사진 콘테스트, 소원 연날리기, 소원 풍등 날리기, 강진만 갈대 미로정원, 갈대공예체험, 종이꽃 만들기 체험, 어린이와 함께 가을 소풍, 디트체험이 인기를 끌었다.

28일 밤 강진읍내 오감통 공연에 참여하고 29일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즐겼다는 외국인 관광객 탄자 베르가씨(오스트리아)와 밤보사 무엘씨(카메룬)는 "한국의 피란가을을 하늘 아래 펼쳐진 갈대숲은 대단한 볼거리였다"면서 엄지손가락을 함께 치켜들었다.

강진=최제영 기자

“우리 아기 몸은 소중해요”

곡성군, 천연 바디크림 만들기 체험

곡성군은 지난 27일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산부 및 출산부를 대상으로 천연 바디크림 만들기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환절기를 맞이하여 호호바 오일, 카멜리아 오일을 이용하여 보습에 좋은 천연 바디크림 만들기를 실시했다.

전문 강사의 지도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드는 방법과 어린이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디크림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예비부모는 "나랑한 만들기 정보를 접하고 나니 이기 건강에 좋은 제품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알찬 교육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출산부, 디문화여성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과 임산부,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한 키즈맘 쉼터도 운영 중에 있다.

곡성=김광희 기자

◆ 광주지국안내

계립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조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외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회춘 이서적벽

